

# “태권도의 사랑·자긍심, 지구촌에 알려”

## 송하진 도지사,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폐막 앞두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문화대회로 승화시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지난 30일 열린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태권도의 사랑과 자긍심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극찬했다.

송 지사는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지구촌이라는 슬로건처럼, 지난 7일간 세계 태권도 스타들이 총출동해 글로벌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전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에게 무주태권도원의 성지 이미지를 구축한 물론, 국내외로부터 호평을 받은 개막공연,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 버스킹, 신나는 버스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대회로 승화시킨 대회”라며 “ITF 시범단이 참가해 10년만에 남북 태권도 교류를 재개해 대회의 물꼬를 트는 평화의 대회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만에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역대 최대 국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해 전북도의 힘을 보여줬다”며 “도민의 힘으로 해냈고, 전북이 자랑스럽다. 180만 도민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이다. 더욱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0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폐막식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지사는 “대회 준비단계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개막식에 참여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폐막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님과 IOC 위원님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준비 단계부터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도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특히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송 지사는 “대회기간 내내 경기장·행사장·선수촌에서 굿은 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 600여 자원봉사자, 안전한 대회를 위하여 힘을 보태주신 군·경·소방 관계자들, JB 금융지주·아시아나·태산·무토·투사 등 후원업체 관계자들과 무주리조트, KT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일간 취재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생산한 보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83개국 1,788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참가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및 10여명의 IOC 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유력 인사가 대거 참여하고 60여명의 해외기자단과 200여명의 중앙·지역 기자단의 실시간 보도와 아시아, 유럽, 중남미 96개국 해외출발 및 인터넷 국내외 방송으로 무주 태권도원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장이 되었다.

송 지사는 “대회 조직위가 이번 대회에서 세운 목표인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에게 성지로 구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열어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 강화라는 2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북도의 자긍심과 자력을 세심 확인할 수 있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여러분 그리고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 이효리 출연 JTBC ‘뉴스룸’ 시청률 소폭 상승

가수 이효리(37)가 출연한 JTBC ‘뉴스룸’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



지난 30일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JTBC ‘뉴스룸’은 평균 시청률 3.481%를 기록했다. 이효리가 출연한 ‘문화 초대석’ 코너는 4.067% 시청률을 나타냈다.

이날 JTBC 순석회 앵커는 이효리와 과거 인연을 털어놨다. 손 앵커는 “내가 ‘100분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쟁반노래방’을 하고 있었다”며 “당시 ‘100분 토론’의 시청자를 많이 빼앗다. 들고 돌아 ‘뉴스룸’이란 외나무 다리에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효리는 선공개곡 ‘서울’을 소개하며 “서울을 미워했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이 어둡고 나빴던 게 아니라 서울에 살 때 내가 어둡고 답답했던 것 같다”며 “내가 괜히 서울을 미워했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도 참 좋은 곳인데”라고 덧붙였다.

손 앵커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묻자 이효리는 “참여하고 싶으니까”라며 “말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7월 4일 정규 6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이효리는 지난 28일 선공개곡 ‘서울(Seoul)’을 발표했다.

/뉴스

### 십센치, 2년9개월만 정규 4집 발표

인기 2인 밴드 ‘십센치’(10cm)가 2년9개월만에 정규 4집을 발표한다.



지난 30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에 따르면 십센치는 8월 말 새 정규를 내놓는다. 싱글이나 OST가 아닌 정규앨범은 2014년에 발매한 정규 3집 ‘3.0’이후 처음이다.

보컬과 첼로의 권정열, 기타와 코러스의 윤철종으로 구성된 십센치는 2010년 EP로 데뷔했다. ‘아메리카노’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 밴드로 떠올랐다.

/뉴스

### 하지원, 화장품 회사 상대 민사소송 1심서 패소

배우 하지원(39)씨가 “자신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마라”라며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함석천은 30일 하지가 국내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며 “초상권 금지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지씨는 G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서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하지 측에 따르면 당시 하지씨는 친언니와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사 대표가 하지씨를 배제하고, 운영이익을 G사 측 이익으로 돌리려 했다는 게 하지 측 주장이다. 하지 측은 이후 G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

### 제5회 무주 반딧불이 전국 오픈 탁구대회

제5회 무주 반딧불이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1일과 2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 체육회와 무주군 탁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무주 반딧불이 전국 오픈 탁구대회는 탁구를 활성화시켜 전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무주를 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1천 여 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들이 참가했다.

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무주군탁구협회 박선수 회장 등 내빈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황정수 군수는 “좋은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생생한 기

### 전국 탁구인들, 이틀간 무주에 모였다

반딧불이 전국 오픈 탁구대회 성료

운이 우리나라 곳곳에 스미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난 6월 무주를 꼭 채웠던 183개국 세계태권도인들의 열기가 이번대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는 일반부(남/녀 개인 단식, 단체전, 3인 단체전, 혼성 3인 단체전)와 라지블부(남/녀 개인복식, 4인 단체전)로 치러졌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경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미를 더했다.

무주군은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선수 안전을 위해 구급차량 1대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경기장에 배치시켰으며 별도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며 관광과 전지훈련지로서의 무주, 무주반딧불축제 등을 홍보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37, 대전) “다양한 태권도 상징 조형과 형형색색 꽃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도시 경관, 그리고 친절함이 배어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183개국과 함께 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무주의 면모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탁구를 즐기기에 앞서 너무 완벽해서 다양한 경기를 위해 앞으로 무주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에서는 2015년 12월 우리나라 탁구 꿈나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40여 명이 동계 합숙 훈련을 했으며, 2016년에도 아시아 주니어·카펫 탁구선수권 선발전에서 선발된 탁구 청소년 대표 30여 명이 하계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